

봄



마침내 종(終)이다. 새해부터 시작했던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시리즈가 마지막에 이르렀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명징하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살아 숨 쉬는, 실재하는 시간의 위력을 깨닫는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 궁극의 끝은 무엇이며 무엇이 있을까. 혹은 그곳 어디가에 흘러보냈던 수많은 시간의 업들이 쌓여있을 것도 같다. 오늘의 나태와 안일을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님은 물 스듯 허비했던 시간을 계수할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심산유곡에 자리한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 봄이면 다투듯 깨어



여름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20>에필로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흥사' ... '숨' 쉬는 이곳에서 '쉼' 을 찾다

나는 연초록의 숲이 생명의 신비를 일깨우고, 여름이면 숨 막히도록 우거진 진초록의 숲이 세상살이에 지친 사바 사람들을 꺼안는다. 산야가 오색으로 물드는 가을엔 결실과 비움이 주는 역설을 되새기며, 때운바람이 부는 겨울엔 마른 가지가 피워내는 성성장 정신의 꽃을 본다.

사실 필자는 불자가 아니다. 불교의 '불'(佛)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기사를 쓰는 동안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던 게 부끄럽고 부끄럽다. 마음을 씻고 욕심을 털어버리는 일에도 진력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산에 들 때마다 조금씩 알게 되는 재미가 없지 않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면 어떤 알 수 없는 충일함을 맛보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는 불자와 속인(俗人)의 경계가 따로 있지 않았다. 자비는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하심에서 시작되기에 일주문을 넘을 때나, 경내를 오가며 부처의 가르침과 지혜를 곱씹곤 했다. 천년 고찰 대흥사를 찾은 것은 남도의 대표 사찰을 둘러보는 것에서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을 알현하는 일이었다. 기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와 역사 도량으로서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새기고 그것을 실천의 장에서 닦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대흥사의 지명과 유래, 임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충혼을 오롯이 만날 수 있었다.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니, 의발(衣鉢)을 대둔산에 전하라'는 유언의 흔적은 경내 곳곳에 여말하게 남아 있었다.

1788년 정조 왕이 사액한 표충사 사당에서는 매년 향례를 올린다. 유교중심의 사회였던 조선 중기에 표충사를 건립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사의 호국 정신을 받들었다는 방증이다. 그의 자취는 이곳 대흥사에서뿐 아니라, 입적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도 남아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언젠고 함께 향례를 올릴 날이 도래할 것이다.

다도를 널리 알렸던 초의선사의 검박한 가르침도 대흥사가 자랑하는 유산이다. '초의(草衣)라는 '풀'에 깃든 정신은 허투루 넘길 일

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지 않는지.. 돈과 명예와 학벌, 연고라는 그 허량한 옷을 겹겹이 걸친 데다 안쪽에는 '자아'라는 더 두터운 '에고'를 숨기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대흥사에 가거들랑 일지암을 찾을 일이다. '풀'의 정신'에 빗대 탐진취(貪瞋癡)로 얼룩진 내면을 한번쯤 닦아내야 한다.

초의선사는 산중에 기거하면서도 추사 김정희와 같은 당대 학자나 사대부들과 교류를 했다. 그의 시문은 잔잔한 여운으로 때론 우리의 정신을 씻어준다. 다성(茶聖)의 음성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도 같다. "고요히 앉은 자리/ 치는 마저 빈 잔인데/ 향기는 처음대로다/ / 妙用이 발휘하니/ 물은 흐르고 꽃은 피고"

천불전(千佛殿)이 주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옥돌을 하나하나 깎고 다듬었을 석공들의 가없는 열정에 옷깃이 여며진다. 1811년 큰 불이 나고 석공 10명이 6년여에 걸쳐 만든 1000개의 불상. 풍랑으로 일본으로 떠내려갔다가 돌려받은 불상(768좌)을 보고 나면 천개의 욕심, 천개의 욕망도 타버릴 듯하다.

그 뿐인가. 통일신라 말에 조성된 북미리암 마애여래좌상(국보 308호)의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자세를 잊을 수 없다. 수려한 풍광과 조화를 이룬 조형미는 여타의 수사를 넘는다. 또한 13대종사와 13대 강사를 배출한 대흥사의 가풍은 어떤가. 동국선원의 수행정진 가풍은 '남방제일수행도량'이라는 전통을 곧추 세운다.

대흥사 월우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시절 고시에 합격한 것은 동국선원에서 시작된 염원이 감응한 것이었다"며 "당시에 예비군 훈련을 빠지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대흥사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달 간 대흥사를 오가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문는다. 부처를 보았는가?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깨달은 것이 정녕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산사를 내려오며 이번에는 스스로 문는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공은 무엇

인가? 아니 없음은 무엇인가? 공덕 높은 스님들은 그 없는 것마저도 없다고 치부하라 하지 않던가.

세상 속으로 들어서면 늘 그렇듯 햇기는 떨어져 있다. 사람살이의 여러 모양들이 바빠 스쳐 간다. 나를 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명명하는 불빛에서 본다. 발을 딛고 선 이곳은 낙원이 아니다.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 부대끼며 사는 사바의 세상이다. 모든 욕망과 욕심이 불붙듯 이는 무간의 세상이다. 그러나 이곳 어디가에도 극락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와야 할 극락은 세상속 사람들의 집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상이 고단하고 허허로운 때, 깨달 없이 눈물이 흐를 때, 대흥사를 찾을 일이다. 쓸쓸함과 비루함을 잠시나마 털어줄 마음의 산사가 그곳에 있으니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대흥사 제공)

가을



겨울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